

결 정

2018 - 4004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

주 문

일간스포츠(isplus.joins.com) 2017년 12월 11일자(캡처시각) 「17억 번 女교사
생계 위해 ○○ 행위!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추천 링크



<12. 11. 12:05:44 캡처>

<http://isplus.liv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22191935&cloc=isplus|ent|isplus_art_hotclick>

일간스포츠는 주식투자 자문업체를 광고하면서 여교사가 성매매를 하는 듯한 말맛으로 제목을 달았으며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플래시배너를 첨부했다.

이는 “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”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참고: 해당사이트

<<http://buxmeto.co.kr/qwerasd7362789/?ref=1664&cc=1151335>>

데일리토픽

30대 女 간호 조무사, 68억대 부동산 자산가 된 비법.. 알고보니

- 수백억 가진 30대 女 간호조무사.. 수익비법 알고보니...
- 인생역전, 남 얘기라 생각 했는데...

2018년 1월 10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용담	김용담
위원	정승호	정승호
	장명국	장명국
	이동현	이동현
	장인철	장인철
	강희	강희
	김영모	김영모
	박현갑	박현갑
	박미경	박미경